

우치구라: 마스다에 있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창고

마스다의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에는 길쭉한 상가의 가옥이 줄지어 있어 옛날 상인들로 번성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가옥에는 실내에 '우치구라'라고 불리는 보기 드문 흙벽 창고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상가 대부분은 점포나 주거 공간과 떨어진 장소에 창고를 한 채 또는 그 이상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마스다의 상가에는 주거 공간에 창고가 포함된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본채 뒤쪽에 있는 흙벽 창고는 사야라고 불리는 윗 지붕으로 덮여 본채와 연결돼 있습니다. 흙벽 창고는 저장고라기보다 일상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비유하자면 개조한 차고를 개인적인 거실이나 재택근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다 특유의 건축물과 그 발전

마스다가 경제 발전을 누린 19세기부터 20세기, 부유한 상가는 점포나 저택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년)에는 부지의 정면 폭에 따라 세금을 매겼기에 마스다의 상인들은 절세 대책으로 세로로 길쭉한 부지에 점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은 장사가 번창함에 따라 저택을 안쪽으로 확장해 나갔고, 안쪽까지의 길이가 긴 건물이 몇 채나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상가 건축물의 특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눈이 내렸을 때 지붕에서 떨어진 눈이 가게 앞을 막는 것을 막기 위해, 정면 입구와 수직 방향으로 지붕의 경사면이 있는 맞배지붕입니다. 또한 현관에서 뒤쪽까지 긴 도리도마(흙바닥으로 된 복도)로 이어져 있어 가게 앞과 주거 공간, 우치구라를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으로 덮여 있어서 폭풍우를 견딜 수 있기에 우치구라를 생활 공간으로 받아들여 가구를 두는 저택도 있었습니다.

우치구라의 구조

우치구라의 문과 벽은 검은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외벽에는 장식으로 격자 모양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시키구라라고 불리는 2층으로 된 우치구라가 많아졌습니다. 입구 근처의 바닥에는 판자, 실내에는 다다미를 깔아서 가족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2층 부분에는 가구나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품, 중요한 서류 등을 보관했습니다. 일반적인 우치구라는 바닥에 간단하게 판자를 깔고 천장에는 두꺼운 대들보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스다에서 가장 오래된 우치구라는 1847년에 세워졌으며, 가장 새로운 우치구라는 193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우치구라는 밖에서 보이지 않기에 당시 주민은 누가 우치구라를 지녔는지, 지니지 않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역사

연구자들은 마스다에서 90년간 만들어진 우치구라의 수를 50 채 정도로 보지만, 정확한 수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우치구라의 일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거나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스다의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넓지 않기에 한나절이면 우치구라 대부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우치구라에는 각각 그 집의 개성이 담겨 있으며, 현재도 살고 있는 집주인이 견학하는 사람에게 가옥을 안내하고 그 역사를 들려줄 것입니다.